

병뚜껑으로 짠 직물에 스며든 찬란한 슬픔

가나 출신 엘 아나추이 개인전, 11월 26일까지 바라캇서울서

위스키·콜라는 서구 자본주의 상징…사람 흔적 남은 병뚜껑 연결해 지구촌 사람들을 엮는 작업

전지현 기자 입력 : 2017.10.20



알루미늄 병뚜껑과 구리선, 철사로 만든 작품 앞에 서있는 엘 아나추이.

천변만화하는 황금빛 대형 천이 전시장 벽면을 덮고 있었다. 그런데 반짝이는 표면의 정체는 병뚜껑이라니….

가나에서 태어나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작가 엘 아나추이(73)는 버려진 알루미늄 병뚜껑 수천 개를 구리선으로 엮어 태피스트리(직물)를 만든다. 병뚜껑을 일일이 납작하게 눌러 도형 모양을 만든 후 섬세하게 연결했다. 엄청난 노동력으로 완성한 대형 그물망은 세계 지도처럼 웅장하다. 그러나 콜라나 위스키 병뚜껑은 아프리카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흘러들어간 자본주의 상징이다. 비극적 역사와 노예제도를 생각하면 아나추이 작품은 찬란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서울 개인전을 위해 내한한 아나추이는 "1990년대 후반 우연히 공터에서 위스키 병뚜껑이 잔뜩 들어간 포대를 발견한 후 작업실로 옮겨왔다"며 "매일 쳐다보고 만져보면서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 고민하다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근현대사가 응축된 개인전 제목은 `관용의 토폴로지(위상 기하학)`. 작가는 손길이 닿은 물건에는 그 사람의 DNA 혹은 에너지가 남는다고 믿는다. 그는 "버려진 물건들과 이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며 "일종의 역사, 이야기가 남아있기에 서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모로코 마라케시 비엔날레에서 호수 앞 고성(古城) 전면에 설치된 엘 아나추이 작품
`킨드러드 뷰포인트즈(Kindred Viewpoints)`.

무역을 통해 위스키와 맥주가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했던 것처럼 그의 작품도 지구촌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수천, 수만 개의 병뚜껑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지역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작가는 "병뚜껑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의 조국, 가나는 영국 식민지배 역사를 거쳐 1957년 독립했다. 유년 시절 학교에서 영국 문화를 배웠다. 아프리카 문화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작가는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면서 제가 받았던 교육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것이 우리의 콘텐츠,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대학 근처 국립문화센터를 방문하면서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토속작가들이 자유롭게 전통 음악에 맞춰 춤 추고 연주하면서 직물을 짜거나 나무판에 조각을 새기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구식 학교 교육을 받을 땐 예술은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온몸으로 즐기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서구 예술에서 독립한 작가는 아프리카를 `제3세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예술에 제1세계, 제3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술은 예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직조한 작가는 2015년 아프리카 작가로는 처음으로 베니스비엔날레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예술가에게 선사하는 프리미엄 임피리얼 국제 예술상도 수상했다.

세상을 연결하는 그물망 같은 그의 작품은 200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팔라초 포르투니 미술관을 휘감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박물관, 퐁피두센터, 테이트모던,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에 걸려 있다. 전시는 11월 26일까지.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